

기록의 정치성에 관한 몇 가지 단상¹⁾

이영남 교수(한신대)

- 목 차 -

1. 프롤로그
2. 두 세계의 조우,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3. 기록관리의 역사적 등장과 그 함의
4. 정치적 존재인가, 아카이브
5. 몇 가지 제안

1. 프롤로그

릭이 립인 것은 립이기 때문이다. 립은 기록관리 정책포럼이 뭘지 몰랐다. 재판기의 커피처럼 누군가 누르면 나가면 되지 하는 심정으로 무작정하고는 발표자가 되었다. 그런데 원고독촉용 전화를 건 아무개 연구사님(실명은 예의상 공개하지 않는다)에게 왜 원고가 제 시간에 나와야 하는지를 찬찬히 듣고서야 비로소 정책포럼이 꽤 중요한 자리임을 알 수 있었다. 나설 자리가 아닌데 끼였구나, 이걸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자각이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공공기록관리의 대소사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에 대해 립은 평소에도 심적인 부담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다. 립이 피곤한 얼굴로 주변의 지인들에게 공공기록관리를 떠나고 싶다는 얘기를 종종했던 이유이다. 그러나 인생은 내가 여기에서 계획을 세울 때 저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립이 골방에 박혀 떠나는 계획을 세울수록 재판기의 판매량은 늘어난다. 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글썄, 어렵지는 않다. 매사의 출처는 자기 욕망인 법이니 사실 립은 재판기가 되고 싶은 것이다. 립은 자신을 쫓대 없는 사람으로 이해한다. 다른 사람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을 몰라도 자신은 잘 알기 때문이다. 자신을 재판기와 동일시하는 립은 <커피가 필요해> 하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자기도 모르게 재판기로 변신한다.

1) 당초 국가기록원에 제출했던 제목은 <국가기록원의 자기이해와 기록혁신>이었다. 그러나 발표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목 변경의 필요성을 느꼈다. 약간 확장해서 말해본다.

얼마 전부터는 재판기 알고리즘이 이상해졌다. 커피를 누르면 울무차, 울무차를 누르면 커피이다. 방금 전에 뭘 시키셨죠? 상대에게 되돌아가 묻지 않고 그냥 그 순간의 기억에만 의지하는 것이다. 일본에는 치매 할머니들이 서빙을 하는 식당이 있다고 한다. 이름은 행복 식당. 집이나 시설에 가두는 식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함께 살자는 취지로 운영되는 식당이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행복식당과 식당 사람들의 대의에 공감해서는 짜장면 대신 짬뽕이 나와도, 비싼 탕수육이 나와도 무척이나 기분 좋게 먹는다. 오히려 이번에는 어떤 음식이 올까, 이번에는 왜 이 음식일까 하는 생각에 즐겁게만 하다.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개인에게 맡겨두지도 않고 관행적으로 복지시설에 맡겨두지도 않고, 지역에서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함께 풀겠다는 의지이다. 시사하는 바가 있다. 가급적 립은 행복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한다. 립은 자신의 본질이 재판기라는 것을 체념하면 서도 알고리즘이 변한 후에는 다소 즐거워졌다.

사회통념상 이런 자리는 공문체(official document style) 논문이어야 한다. 행정기관에서 '정책'을 말하려면 공문체 논문이어야 한다는 점을 립도 알고 있다. 립도 이력서만 보면 정상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기록을 말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바꾼 립은, 노라의 운명을 닮아가고 있다. 공문체 논문의 단일한 세계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립에게 기록은 향연이다. 동무들과 함께, 소규모 기록모임에서, 서사체(narrative style) 기록산문을 낭독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 기록물을 분류하고 정리하고 기술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다. 립이 자기취향만을 위해서 서사체를 고집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기록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기록에는 어떤 가치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나름의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영남 2018).

서사체 산문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시발점, 시퀀스(전개 순서), 문장형식, 목표를 기준으로 두 문체를 비교한다.

공문체는 다음과 같다. ①공문은 규정을 근거로 삼아 출발한다. ②시퀀스는 <배경/필요성 → 현황 → 개선방안 → 추진일정>이다. ③문장에는 주어와 주어의 부가 정보가 없다. 문서를 기안하고 결재하는 담당자가 있다는 점에서 주어와 주어의 부가 정보가 없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담당자/담당부서는 행위자이긴 하나 주어는 아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이런 말을 한다. 규정과 절차, 지시에 따른 것뿐이다. 그렇다면 규정과 상부가 원형이고 그들은 하청이다. 하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문제가 생기면 규정을 개선하고 절차를 바꾸며, 진정한 상부인 제도를 개선한다. ④문장에는 감정이 없다. ⑤공문에는 성과가 있다. 공문만 보면 매사 순풍이다. 성과를 기록하지 않는 공문은 없다.

서사체는 다음과 같다. ①이야기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작된다. ②시퀀스는 <주인공의 등장 → 예상치 못한 사건의 발생과 균형의 깨짐 → 균형을 회복하려는 시도와 연이은 좌절, 조력자의 등장 → 반전 → 균형의 회복>이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무언가를 이루려고 상당히 애를 쓰지만 그것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③이야기에는 주어와 주어의 부가 정보가 있다. 이야기의 서

두에는 주인공의 캐릭터가 소개된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잠시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 상황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수용한다. ④이야기에는 감정이 있다. 정서적 변화가 이야기의 본령이다. 주인공은 끊임없이 다음과 같은 윤리적 질문을 던진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주인공은 심장에서 박동치는 윤리를 의식하며 근원적인 자기질문을 던진다. 새로운 곳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주인공은 도덕을 재구성한다. ⑤이야기는, 특히 자전적 기록은 좌절과 실패를 기록한다. 성과만 있는 인생은 없다. 이력서에는 성과만 기재할 수 있지만 이야기에는 좌절과 실패를 기록해야 한다. 정서적 변화와 윤리적 질문, 관계와 공동체성의 회복이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다.

이야기는 살아온 시간을 정리하는 기록형식이다. 우리는 각자 산다. 각자의 체험은 각자의 몫이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각자의 신체적 체험을 공유하고 소통해야 한다. 이야기라는 기록형식은 이 때 등장해 각자의 체험을 사회적 경험으로 변용시킨다. 이야기는 사실적 정보제공을 위함이 아니다. 사실을 논증하는 것도 아니다. 목적은 다른 데에 있다. 이야기의 종착점은 도덕성이다. 이야기에 담기는 사건의 줄거리, 등장인물들의 생각과 정서, 태도와 윤리, 가치와 지향은 결국 도덕성을 형성한다. 이야기가 끝나면 뭔가 이전과 달라진 느낌이 드는 것은 도덕성의 거대한 산이 조금 움직인 것을 의미한다.²⁾ 트라우마 이야기는 너무도 강력해서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기 힘들다.

지난 10년, 뜻밖의 사건이 기록을 강타했다. 대통령 서거, 기록사건(예. 국가기록관리 혁신TF에서 제출한 《국가기록관리 혁신방안》(2018.2)의 사건들), 세월호 참사, 강남역 살인사건, 구의역 스크린도어 비정규직 사망사건, 대통령 탄핵 등의 사회적 사건은 기록공동체도 강타했다. 이런 사회적 사건을 공문체로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도덕성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도덕성은 자기 내부의 목소리이다. 그리고 각자의 태도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행동이다. 어려울 것은 없을 것 같다. 최근 4명의 대통령을 태도와 언어를 살펴보면 도덕성의 차이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도덕성은 고정불변이 아니다. 살아온 시간에 대한 몸의 기록이다. 기록공동체의 태도도 그것이 아닌가 한다. 지난 10년의 사회적 사건에, 기록공동체는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 시간을 어떻게 고민하며 보냈는지에 대해, 기록서사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야기라는 기록형식에는 은유, 스토리텔링, 플롯 등의 이야기 장치가 필요하다. 이야기 작업은 기록의 윤리적 과제를 점검하고 기록공동체의 도덕성을 회복하려는 시도이다. 이 글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릭은 서사체와 공문체가 공존하는 아카이브를 욕망한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기록에는 전문성이 있고 전문성은 공문과 보고서와 공문체 논문이 담당할 몫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 릭의 생각이다. 온전한 날개를 바라는 것이며,

2) 로널드 B. 토비아스,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무 가지 플롯》, 2007, 풀빛

새들의 비행원리인 차이를 지향하는 것이다. 새의 비행은 자동차의 주행과는 원리가 다르다. 자동차는 동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의 차이에서 오는 힘이 새들의 비행 원리이다. 좌우의 기록학, 또는 서사체-공문체의 뒤섞임이 개척할 아카이브도 있을 것이다.

릭은 연구논문/정책보고서보다는 단편소설에 비중을 둔다. 릭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도 일리가 있다. 이런 영화 대사가 있다.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엄마도 유대인이니 나도 유대인입니다. 날더러 뭘 어찌란 말입니까?’ 괜찮은 식당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던 한 유대인이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면서 표현한 서글픔이었다. 어느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릭이 되어 버린 릭은, 그 뒤로는 릭으로 산다. 불가해한 이단아 취급을 받아도 어쩔 도리가 없음을 아는 것이다. 공공기록관리에 대해 아는 바 없으나, 물질이 없으면 마음이라도 보태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초대를 받았다. 그러나 물질(국가기록관리에 관한 비전과 정책)이 없어 가난한 릭은 기록을 사랑하는 마음 한 자락을 서사체 산문에 담았다. 어수선한 프롤로그에 양해를 구한다.³⁾

2. 두 세계의 조우,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1) 두 세계의 조우

좌우가 있고 위아래가 있다. 앞뒤가 있고 긍정과 부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인간에게는 대립되는 두 측면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인지가 있다. 기록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3) 첫 문장은 ‘일상생활과 기록’ 수업시간(한신대 2018년 봄)에 한 학생이 제출한 기말보고서의 첫 문장을 베낀 것이다. 이 학생은 문창과 학생이었다. 기록이 줄거리인 중편소설을 기말과제로 제출했다. 아카이브의 아름다운 세계가 작품에 있었다. 릭은 그림책 <프레드릭>의 주인공인 Frederick의 줄임말이다. 프레드릭은 동료들이 곧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서 양곡을 준비할 때, 햇살과 바람과 시와 이야기를 모은다. 프레드릭 이야기는 해피 엔딩이다. 릭은 이 글에서는 기록하는 사람의 은유이다.

〈두 개의 기록세계〉

구분	조직의 일	인간의 일
방향 (대상)	조직 (기록물)	인간 (타인)
기록형식 (생산물)	공문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실의 생산)	서사체 (은유, 이야기의 생산)
세계관 (인과성)	기계적 세계관 (직접적 인과성)	생태적 세계관 (유기적 인과성)
도구	기계적 장치 (제도, 기구, 기능, 규정과 절차)	마음 (언어와 정서, 태도와 윤리) (가치와 정체성, 관계와 의례)
프레임	공공 프레임	공동체 프레임
의미	아카이브	

약간의 설명을 덧붙인다. 방향은 타원의 방향이다. 선형적 이미지는 어딘가를 향해 계속 가는 것이 방향이지만, 타원의 이미지는 회향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출발하느냐가 어디로 회향하느냐이다. 타원의 한 점에서 출발해서 타원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출발한 곳에서 멈춘다. 조직에서 출발하면 조직으로 회향한다. 중간에 이용자가 있긴 하겠지만. 인간에서 출발하면 인간으로 회향한다. 중간에 무엇이 있든. 조직의 일로서 기록은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이다. 기록물이 생산되는 조직을 분석하는 것은 어떤 기록물을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반면, 인간의 일로서 기록은 ‘타인을 관리하는 것’이다. 타인이라는 말과 관리라는 말이 주는 부정적 뉘앙스 때문에 거부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철학이나 윤리학에서 타인은 윤리적 관계를 말한다. 부부, 부모와 자식, 연인, 직장동료 등의 특별한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 길거리에서 스쳐지나가는 존재는 물론 아니지만 마주쳤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윤리적 관계가 될 수 있다. 관리의 계열에는 따뜻한 느낌의 방법이 많다. 예를 들면 보살핌이 있다(‘현정문서’⁴⁾ 참조). 매일 만나는 부부 사이라도 생각 없이 만나지는 않는다. 말 한마디에 반응하면서 끊임없이 상호조정하면 부부를 형성해간다.

기록형식에 대해서는 1장에서 언급을 했지만, 몇 자 덧붙인다. 이야기는 인간의 시원적 기록형식이다. 다음은 몇 백 만년을 반복했던 인류의 저녁장면이다. 작은 집단의 인간들이 불가에 모여 앉아 요리를 해서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인간이란 존재는 화식(火食, cooked food)과 기록을 섞으며 진화했다. 인간은 꽃을 보며 아름다움이란 관념을 형성했으며 이야기를 하면서 서사체 기록동물로 진화했다. 문자가 나온 것은 겨우 1만년이다.

4) 이현정, <참여와 개입 : 공동체 아카이빙 윤리의 모색>, 한국기록학회 제117회 월례발표회 발표문 (2017.9.9.).

세계관을 말해본다. 기계적 세계관은 커피-커피, 울무-울무 하는 식의 명쾌한 세계관이다. 상식적인 세계관이다. 이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 직접적 인과성은 세계의 직접적인 모습이다. 각자의 체험을 직접적으로 지배한다. 예를 들면, 서 있는 장난감을 민다. → 장난감이 쓰러진다. 목이 말라? 물을 마셔. 갈증이 해소될 거야. 이런 식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직접적 인과성은 있는 것은 아니다. 생태적 세계관은 상호 유기적 관계성과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세계관이다. 이 세계에는 유기적 인과성이 작동한다. 유기적 인과성은 직접 체험할 수 없더라도 인지(認知, cognition)로 이해할 수 있는 인과성을 의미한다. ‘나비효과’ 같은 은유는 유기적 인과성을 말한다. 어떻게 남미 대륙의 나비 한 마리가 한반도의 기상과 연결될 수 있을까. 한 인간의 신체적 체험으로는 알 수 없지만, 과학/인지는 이것을 유기적 인과성으로 명징하게 알려준다(조지 레이코프 2014). 생태적 세계관에서 작용하는 유기적 인과성에 대해서는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회색늑대 프로젝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3장). 여기에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도구를 말해본다. 기계적 장치는 조직에서는 익숙한 일상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 마음은 낯설 것 같다. 마음 자체가 낯선 것은 아니다. 뜬금없음에 대한 것일 것 같다. 왜 기록과 마음이 연결되느냐 하는 것에서 낯섬을 느끼지는 않을지. 어쩌면 거부반응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언어와 정서, 태도와 윤리, 가치와 정체성, 관계와 의례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간단하지 않다. 다만, 조직도 법조문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있으니 다른 언어는 없을까 하는 것이고, 한국의 기록관리가 효율의 정서로 작동되고 있다면, 다른 기록정서는 없을까 하는 것이다. 한국의 기록관리가 조직 위주의 기록관리라면, 가치를 내세우는 기록은 없을까 하는 것이다. 절차만 따지지 말고 사람들이 만나는 형식인 의례도 보자는 것이고, 관계 맺는 방식도 기록의 관심사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자세한 것을 후술한다(4장).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이다. 프레임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우리가 짜는 계획,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 우리가 행동한 결과의 좋고 나쁨을 결정한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프레임을 인식한다. 프레임은 가치와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며 담론을 지배한다. 새로운 프레임은 새로운 언어를 필요로 한다. 프레임의 재구성은 공적 담론이 변화해야 가능하며 일정한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필요하다. 결국 프레임을 재구성하는 것은 사회변화를 의미한다(조지 레이코프 2014, 12-13쪽). 어떤 프레임으로 기록을 관리하는가 하는 것은 기록의 일만이 아니라, 인간의 일이고 사회의 일일 것이다. 공공 프레임이 형성한 기록이 기록관리라면(3장 1절), 공동체 프레임이 지향하는 기록은 아카이브이다(3장 3절)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표를 설명했다. 조직의 일과 인간의 일은 기록의 두 측면일 것 같다. 지난 20년을 회상하면 조직의 일이 <기록관리>로 성장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고, 인간의 일은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는 생각이다. 이 글에서는 이 지점에서 <아카이

브>를 새롭게 규정해보려고 할 것이다. 이 글은 전자를 비판적으로 이해한 후 후자를 재구성하려는 시론적인 논의이다.

2) 기록을 업으로 삼는 우리는 누구인가

이 글에서는 두 개의 세계를 ‘세포분열의 원리’로 이해한다. 인간은 2n의 질서정연한 세포분열로 조직을 형성하면서 신체를 이루고, 그래서 세상에 나왔다. 세포분열의 원리는 생명의 원리이다. 분열이라는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중재의 힘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여기에 있다. 민주주의는 갈등을 관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입장의 대립과 갈등이든 세계관의 대립과 갈등이든, 민주주의는 갈등을 관리하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을 관리한다. 기록학의 과제에는 기록의 중재성이 있다. 민주주의에서 기록의 중재성은 께찮은 방향성이다.

중재성을 캐릭터로 재구성한다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가 될 것 같다. 헤르메스는 우편배달부이다. 헤르메스는 두 세계를 오가며 메시지를 전하며 양자를 중재한다. 1999년에 우리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으로 출발했다. 기록전문직이 전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아니다. 더구나 법적 인정을 받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더 적다. 그러나 대세는 이 방향이다. 법적 인정을 받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다수를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법적 신분은 달라도, 소속은 달라도, 이해는 달리해도, 우리를 공통적으로 묶어주는 것이 있다. 한 문장으로 줄이면, 우리는 기록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아닐까.

기록자는 뭘까. 궁금함이 밀려온다. 기록자를 기록물관리전문요원으로, 나아가 기록전문직으로 좁히지는 않기로 한다. 좁히기 시작하면 배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기록할 일이다. 무대에 등장할 기록형식은 그림이지 않을까. 사진을 찍지는 말자. 인간의 심리는 이상해서 사진을 찍으면 그 사물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사라진다. 그러나 그림은 다르다. 그림을 그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 길어지는 시간만큼 인간과 사물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형성된다. 기록자를 그림으로 그리자. 이 글에서 그리려는 기록자는 헤르메스이다. 헤르메스를 위한 시 한 편을 써본다.

동무여,

우리가 만일 기록자이거든 기록자인체 하자

속이지 말고 기록자인 체 하자!

그리고 땅에 엎드려 땅을 활자

혀의 피가 땅 속으로 흐르도록,

땅의 말이 나올 때까지

동무여, 연민의 동무여

그리고도 마음이 만일 우리를 속이거든
해를 향해 외쳐 물어라
'이 마음의 씨를 영영 태울 수 있느냐'고
발을 옮기지 말자 석상(石像)이 될 때까지.⁵⁾

100년의 시간을 뚫고 온 시가 아닌가. 동무는 대등하고 친밀한 관계성을 상징하는 캐릭터이다. 그런데 기록자는 누구이고, 왜 땅의 말을 갈구하는가.

그러나 시만 읽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3. 기록관리의 역사적 등장과 그 함의

1) 말 한 마리가 정부로 들어왔다.

선영은 정부의 사무관리제도에서 잔뼈가 굵은 직업공무원으로 1990년대에 정부기록보존소장으로 일했다. 선영은 일단의 정부기록보존소 직원들과 공공기록관리법 제정을 추진했다. '선영과 아이들'(1990년대 가요계의 판도를 일거에 바꾼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은유이다. 이하 선영으로 줄인다)은 학계와 시민단체와 협력하는 등 다각도에 걸친 노력을 했다. 정부가 돌아가는 사정과 세상 물정에도 밝았으며 추진력도 쏠던 선영은 마침내 1999년을 이정표적인 해로 만들었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선영은 기록의 판도를 일순간 바꿨다. 오늘 이 자리의 시발점도 20여 년 전 어떤 날에 있을 것이다.

선영은 당시 정부기록보존소 기관지인 『기록보존』에 '기록관리법 제정과 기록보존제도의 확립'이라는 글(이하 선영문서)을 게재했다. 9쪽의 군더더기 하나 없는 간결한 문서이다. 선영은 정부 수립 후 50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우리나라는 건국 50년 동안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법 없이 공무수행 처리지침에 불과한 사무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기록물을 관리해왔다."(11쪽). 이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독법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1945년 8월 15일에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이런 문장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역사가 사라진 곳에는 당연함과 익숙함만이 있다. 사무관리제도에 근거해서 기록물을 관리했다는 사실은 역사의 일정한 시기에 형성되고 발전한 역사적 산물이다. 무심히 당연하다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깃든 역사적 사실이였다. 지금 익숙해진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문장은 정부의 관행화된 의식에 가파른 역사성을 넣었다는 점에서, 본질

5) 포석 조명희(1894-1938)의 시, <동무여>를 일부 수정했다.

을 꿰뚫는 명문이 아닐 수 없다.

선영문서는 공공기록관리의 독립선언서이다. 50년 동안 사무관리제도의 지배를 받으며 ‘가장 인기 없고, 후미진 업무’(10쪽)로 전락했던 문서관리는 마침내 개념을 기록관리로 바꾸며 독립했다. 사무관리제도의 한 귀퉁이에 있던 문서관리가 기록관리로 당당하게 변신했다. 개념(기록관리)이 생기자 제도(법률), 기구(기록관), 인력(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재산(기록물), 원칙과 방법론이 맞물려 들어왔다. 비로소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록제도, 의미 있는 기록담론이 등장했다.

이상으로 기록관리가 등장했던 방식과 그 의미에 대해 간략히 정리했다. 요약한다면, 지난 20년은 기록관리가 정부를 구성하는 법률적 존재로 성장하는 과정이었다. 한편으로는 <공공기록관리라는 특이한 무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했다.⁶⁾

2) 20년 후 기록관리에 대해

기록관리는 낡았다. 기록관리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 세워졌다. 선영은 행정을 넘지 못했다. 기록관리기관이라는 말을 관행적으로 쓰지만, 기록행정기관이 정확할 것 같다. 국가기록원은 행자부의 기록관리 행정을 담당하는 기록행정기관, 공공기록관은 해당 기관의 기록 행정을 담당하는 기록행정부서(담당자)가 아닐까. 그리고 기록관리직의 경우, 기록전문직보다는 기록행정직의 성장과정은 아니었을까. 선영은 사무관리제도 아래에서 숨죽이고 있던 문서관리를 기록관리가 아니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아닐까. 행정 아래에서 숨죽이는 기록관리를 아카이브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선영은 공공프레임으로 접근한 것 같다. 선영문서는 기록관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올바른 국정수행을 위한 것으로 잡았다. 기록이 국가행정의 일부라는 선언이었다. 이 자체는 문제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프레임은 정부의 장기지속 프레임이다. 선영의 정신은 ‘문서관행’을 끊는 것이었지만 프레임 설정에서는 관행 안에 머물렀다. 아쉬운 대목이다.

기록관리에서는 생태적인 지루함이 느껴진다. 다양한 동물들이 살아야 할 곳에 사료를 먹는 사슴만 가득한 것 같다. 사슴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사슴이 일방적으로 너무 많다는 점이 문제이다. 1999년을 기점으로, 낡은 문서관리가 새로운 기록관리에 밀려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다면, 역사의 무심함에 따라, 새로운 무언가에 밀려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것이다. 쓸쓸한 먼지가 배웅을 한다. 2017년이 기점이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기록관리도 우주의 물리법칙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선영은 말했다. 공무수행 처리지침에 불과한 사무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기록물을 관리해 왔다고 왔다고. 그러나 선영, 아무리 선영이지만 이 대목에서는 조심스러워야 하지 않을까.

6) ‘현과 아이들’은 이 글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공무수행지침에 불과하다는 사무관리규정과 그 규정의 일부 조항이었던 문서관리는 1961년에 시작되어 1999년까지 정부문서를 관리하던 상당한 제도였다. 두 세대가 넘는 역사성을 보유한 제도이다. 또한, 사무관리제도에서 문서관리를 빼와서 기록관리제도가 신장개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무관리규정과 그 일부인 문서관리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 정부 문서의 법적 다툼이 있으면 법원은 여전히 사무관리규정(명칭은 바뀌었지만)에 따라 판단한다. 기록관리제도가 사무관리제도를 대체한 것은 아니다. 기록관리는 사무관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둘을 구속하는 상위의 존재에 귀속되어 있다.

사무관리와 기록관리는 업무수행/국정수행이라는 풍을 구성하는 계열로 존재한다. 이것을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기록관리제도는 정부행정의 일부이고, 행정기능의 일부인 기록행정이다. 그래서 기록관리법의 기록물관리기관은 정부의 기록관리를 행정적으로 수행하는 기록행정기관이다. 기록물을 보존하는 기능은 부차적이다. 정부차원이나 행정차원에서, 또는 행안부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본질은 행정일 것 같다. 20년 전, 선영의 기록 선언은 대단한 선언이었고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알리는 이정표적인 선언이었음에는 틀림이 없다. 우리는 모두 거기에서 출발한 존재이다.

그러나 기록관리는 이제 지루해졌다. 자식들은 커가는 데 여전한 단칸방처럼 비좁기만 하다. 엄청난 출발에도 불구하고 과거 문서관리가 그랬듯이 새로운 것으로 신장개업을 해야 할 정도로 낡았다. 역사의 짐을 홀로 지고 가는 당나귀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지난 10년의 적폐' 때문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적폐청산이면 족하다(이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되어가지만). 그런 특수한 사정보다는 자연적인 이유를 찾아야 하리. 나이가 들면 누구나 자기 생을 마감하듯이 기록관리라는 사회적 존재는 자연스럽게 낡은 것이 되었다.

기록관리 정책포럼을 신장개업 하는 식당의 레시피 개발 같은 자리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비단 정책포럼만은 아닐 것이다. 적어도 지난 2년(2017년 3월 이후) 국가기록혁신 TF, 2017년 12월 열기에 찻던 경주회합 이후 이어진 일련의 논의, 최근의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특위, 정부의 다른 기록물관리기관의 시도 등이 있었다. 정부가 문을 열면 그 바깥에는 '민간단체'가 있다. 민간단체도 제법 논의를 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학회와 협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모임들도 많을 것 같다. 신장개업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정부와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이세신궁 프로젝트를 닮지 않았다. 일본의 이세신궁은 일본 내에서도 신사를 대표하는 특별한 상징성을 갖는 신궁이다. 신궁 중에서도 신궁, 특별한 곳이라고 한다. 이세신궁의 역사는 독특하다. 20년 마다 건물을 허물고 완전히 다시 짓는다. 이세신궁은 690년에 지어져 2013년 현재 62번째로 지어졌다. 이유가 분명하지 않기에 다양한 해석이 있다. 그 중에는 집 짓는 기술의 보존이 있다. 여기에 끌린다. 20년이면 한 세대이다.

새로운 세대마다 집 짓는 기술을 전수,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계획서, 세부추진계획서, 설계도 등의 기록물을 서고에 넣어두면 되지 않느냐는 평범함은 여기에서 통용되지 않는다. 비범한 뭔가가 있다. 의문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세신궁 프로젝트의 엄청난 비효율성, 비경제성 때문이다. 잘만 관리하면 몇 백 년은 족히 쓸 수 있는 건물을 20년마다 허문다? 어리석음과 미련함마저 하찮게 여길 거대한 궁금함을 자아낸다. 왜 그럴까? 이세신궁 프로젝트의 비효율성과 비경제성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아마도 건물을 짓는 기술(경험)이 건물보다 중요하다는 뜻일 것 같다. 이것은 효율을 시금석으로 삼는 경영학의 관점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태도이다. 건물은 오래될수록 운치를 더하는 법이다. 건물을 다시 짓는 비용이 막대해도 건물을 짓는 기술을 보존할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의 출처가 궁금하다.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들은 경영학이 아닌 윤리학을 건축의 원리로 삼았다. 이런 전통이 출발했던 7세기에는 경영학이 없었다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경영학이 도입된 19세기 이래로도 일본에서는 이세신궁 프로젝트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세신궁의 존재성에 대한 그들의 집단적 믿음(개인이라면 양심이나 신념) 때문은 아닐까 한다. 이세신궁이 존재하는 이유와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비범한 프로젝트를 탄생시켰는지도 모르겠다.

이세신궁은 어디에 있을까? 건물의 주소지보다는 가치의 측면에서 말해본다. 이세신궁은 건물에 없다. 신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을 것 같다. 신궁을 보존하는 길은 건물이 아니라 신궁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사랑한다고 해서 순수한 마음이라 할 수 없다. 집짓는 기술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세대를 전승하면서 경험을 보존하겠다는 의지로 관리되는 마음이다. 관광객의 마음이 아니라 목수의 마음이다. 20년마다 이세신궁을 짓는 목수는 혼신의 힘을 다해 집을 짓는다. 과거의 세대와 지금의 세대가 모여서 기술을 전수하고 전수 받는다. 신궁은 경험이 이전되는 시간에 살아 있다. 자신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경험 안에서 신궁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는 건물에 이세신궁이라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뜻일 것 같다.

선영은 정부에 기록관리를 세웠다. 기록관리는 이세신궁처럼 허물고 짓고를 반복해야 할 것 같다. 선영도 선영문서의 '4장. 과제와 전망'에서 계속 짓자고 권했다. 그것은 선영이 기록관리를 건설할 때 새로운 세대와 함께 집을 지으면서 집 짓는 기술, 또는 경험을 공유했기 때문일 것 같다. 기록의 연대기에 1999년은 그런 해이다. 그러나 자고로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의 윤리를 억압으로 받아들인다. 선영의 집짓기 기술은 정치적, 사회경제적, 기술적 변화로 인해 그리고 후속세대의 의식과 욕망의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다. 결국 기록의 새로운 세대란 기록관리를 허무는 운명을 짊어진 자들이지 않을까.

과거 선영에게 다가간 새로운 세대도 그랬다. 대통령이거나 장관이 선영에게 목수를 명한 것은 아니었다. 선영 이전에도, 1969년 창설 이래 정부기록보존소장으로 여럿이 다녀갔다.

임명장에 답이 있지 않다. 문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다른 것은 마음이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도 선영은 자신을 목수로 이해했다. 이것은 순전히 마음에서 작동하는 양심과 신념에 따른 것이었다(시대적 흐름도 있는 줄 안다). 목수가 되었던 선영은 곰곰이 생각했다. 결국,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는 새로운 목수를 기다렸다. 어서 와, 그럼 이제 시작할까, 하는 몇 년에 걸친 스토리였다.

이세신궁 스토리의 엔딩은 심플하다. 목수의 운명을 타고난 자는 자신이 세운 것을 허무는 운명에 복종해야 한다.

4. 정치적 존재인가, 아카이브

1) 정치적 행위와 정치적 책임

윤리적 행위를 먼저 살펴보고 정치적 행위를 비교하며 서술한다. 윤리적 행위는 개인의 시각에서 출발한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를 고민한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기본적으로 윤리학이다. 다른 사람을 설득할 필요까지는 없다. 윤리적 행위는 자기가 자기를 설득하는 것이고 스스로 납득되는 것이다. 내 의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 순수한 관계를 맺고, 지금 여기에서 시의적절 하게 행동하는 지혜와 용기가 중요하다.

그러나 정치적 행위는 차원이 다르다. 정치적 행위에는 다른 종류의 화합이 필요하며 목표가 다르다.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영향력-파급력 있는 조직을 결성하고 활동해야 한다. 정치적 행위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설득되는 것이다. 물론 선거처럼 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설득의 의미가 살아난다. 정치적 행위는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 행위에는 다른 사람들의 의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법과 제도 등 지속적인 관리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

윤리적 행위와 정치적 행위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자유롭게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차이점은, 누구와 상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이다. 이상으로 원론적인 차원에서 윤리적 행위와 정치적 행위를 살펴보았다. 서술이 더 필요한 줄 알지만 여기에서 줄인다. 정치적 책임은 현정문서를 분석할 때 언급하는 형식으로 한다.

2) 아카이브는 무엇인가

아카이브를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기록물을 기다리는 빈 기록상자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기록관리 종사자들에게 아카이브는 음성이나 문자로서 존재하는 것 같다. 현재까지는 개념으로서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다.

20년을 열심히 달려서 굼직한 변화를 끊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록의 인구구성이 달라졌다는 점일 것 같다. 새로운 이유로 기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절실한 욕망을 기록에 넣고 있다. 예를 들면 인권, 정의, 연대 같은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언어를 쓰고자 하며 새로운 윤리를 기록에 새기고 있다. 이런 흐름을 현행 기록관리는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기록의 요구이다. 기록으로 안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카이브는 무엇인가를 묻는다.

아카이브를 익숙한 방식인 기록관리 시설이나 건물, 보존기록물, 기록관리 절차와 방법 등으로 이해하든 상관은 없다. 어찌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다만, 두 개의 기록세계가 들어가야 할 집이라는 점은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글은 '기록관리를 허문 다음에 세워야 할 '새로운 기록은 아카이브'라는 가설을 내세운다. 이 가설에 대해서는 대화가 필요할 것 같다.

아카이브는 이미 익숙한 일상, 더 이상 궁금함을 자아내지도 않고 매력도 없는 사물이 되어 버린 것만 같다. 그러나 묻고 싶다. 우리는 아카이브를 다 아는 것일까. 아카이브는 이제 과거를 알려주는 지질학의 대상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기록관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카이브를 무시하는 것 같다. 찬밥 신세이다. 현실이라는 이유로 기록관리만 손에 쥐고 있는 것 같다.

아카이브는 어디에 있을까? 세종시의 대통령기록관이 아카이브인가. 성남의 나라기록관이 아카이브인가, 서울 은평구의 서울기록원이 아카이브인가. 만약 아카이브라면 왜 이름을 아카이브라고 하지 않고 기록관이라고 할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전문기록물관리기관/헌법기록물관리기관/지방기록물관리기관/각급기록물관리기관.... 끝없이 이어지는 기록물관리기관은 그 앞에 형용사만 바꾸고는 반복된다. 계절이 바뀌면 새들도 바뀐다. 아직 아카이브라는 이름을 가진 새들이 없다는 점에서 기록의 계절은 여전하다(최근 시도되는 지방아카이브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기록관리가 아카이브의 번역어이니 기록관리를 말하는 것이 아카이브를 말하는 것이라는 말에는 생각을 달리한다. 일상적으로 아카이브를 쓰고 있으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달리한다. 아카이브라는 발음을 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일까. 그러나 생각해보자. '대통령기록관리'는 당초 1999년에 기록관리법에 이미 들어 있었다. 사무관리제도의 구석에 있었던 문서관리처럼 대통령기록관리도 공공기록관리의 후미진 구석에 있었다. 그런데 이차저차해서 별도로 독립해나가면서 건물도 생겼고, 인력도 늘어났고,

조직도 만들어지고, 기록물도 많아지고, 점차 위험의 징후를 보이더니 우여곡절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 단지 말이었다면, 이미 알고 있는 말뿐이었다면 그런 현실의 변화는 발생할 수 없었다. 국가기록원도 건물을 늘려가지만 그것은 새로운 사회적 존재를 구성하는 건물의 확장은 아닌 것 같다.

변화는 개념에서 온다. 새로운 개념은 새로운 존재들을 불러들인다. 선영도 그랬다. 선영이 기록관리라는 개념을 만들자, 제도(법률), 기구(기록관), 인력(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재산(기록물), 원칙과 방법론이 맞물려 들어왔다. 그러면서 기록관리라는 새로운 세계가 형성된 것이다.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라는 존재는 기록관리라는 개념이 있는 후에 출현한 법률적 존재이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개념은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 논문 한 편에 담기는 것이 개념은 아니다. 개념을 형성하는 계열 중의 하나가 탄탄한 연구논문인 것은 사실이지만 논문 자체가 개념은 아니다. 개념은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의 집단적 경험이나 집단적 힘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나 힘을 조직하는 것은 물음과 대화이다. 제도의 힘이 물론 있어야 하지만 규범의 힘이 크게 작용할 것 같다.

아카이브란 무엇인가, 의문을 품어야 한다고 본다. 또는 아카이브를 옮겨야 할 것 같다. 만약 대통령기록관이 매일 위치를 바꾼다면 대통령기록관 직원들은 늦지 않고 출근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은 생기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아카이브 이미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묻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는 고정관념을 의심하는 것이다.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꿀벌에게 배워본다.

꿀벌을 치는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다. 어느 날 그는 번뜩이는 생각에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아침에 벌집을 열면 꿀벌들은 각자, 또는 삼삼오오 모여서 꽃을 향해 날아갔다. 저녁이 들어올 무렵이면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각자 자기 집으로 들어오지 않은가. 이 점이 신기했다. 꿀벌은 어떻게 자기 집인 줄 아는가. 만약 꿀벌의 위치를 바꿔놓으면 어떨까. 그래도 자기 집을 찾을 수 있을까.

첫 날이었다. 아주 조금, 슬쩍, 별로 힘도 들이지 않고 벌집을 5cm 옮겼다. 그런데 꿀벌들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무사히 자기 집으로 귀환했다. 바보 같으니. 적어도 왜 옮겼어 하면서 양봉업자가 벌인 작당에 대해 한 마디는 하고 집으로 들어가지.

둘째 날이었다. 이번에는 힘을 쓰기로 했다. 벌집을 번쩍 들어서는 대여섯 발걸음을 걸어가 내려놓았다. 2m 거리에 벌집을 옮겨 놓았다. 꿀벌 치는 사람의 이마에는 땀이 조금 맺혔다. 놀랍게도 꿀벌들은 집을 찾지 못했다. 원래 벌집이 있던 곳에서 밤새 웅웅거렸다. 바보 같으니. 조금만 고개를 돌려서 옆을 봐. 옆에 있잖아. 겨우 2m야. 같이 지낸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 새 양봉업자를 닮아서, 고정관념, 기득권, 이해타산에 빠져 있는 거야. 양봉업자의 문법에 따를수록 ‘간신히 빛나던 존엄’은 사라지잖아. 존엄은 내팽겨치고 오직 꿀, 꿀, 꿀 하지 마. 동물이면 동물답게 굴어. 날개가 있는 너에게 2m 거리는 별 일도 아

니잖아.

셋째 날이었다. 양봉업자에게 권력의 맛은 꿀보다도 달콤했다. 타인을 그의 의사에 반해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힘(가장 전통적인 권력의 의미)은 얼마나 짜릿한지. 양봉업자는 이번에는 이삿짐센터를 불렀다. 차로 한참을 가서 벌집을 내려놓았다. 3km 거리. 저녁이 왔다. 어떻게 되었을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꿀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소와 다름 없는 표정으로 각자 자기 집을 찾아 들어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미스터리.⁷⁾

세 번의 실험에 대해 이번에는 꿀벌의 이야기를 들었다. 꿀 치는 사람의 이번 임상실험에 참가한 소감에 대한 것이었다. 5cm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았다. “그 정도 변화는 평소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굳이 왜 옮겼느냐고 따질 계재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관행에 따라 오늘을 살았습니다.” 2m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았다. “그것은 난감했습니다. 우리라고 왜 2m 거리에 있는 벌집을 보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상도의상 남의 집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왜 갑자기 우리 집이 없어졌는지가 혼란스러워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껴서 그 자리에서 뱅뱅 맴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3km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았다.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정서, 태도와 윤리, 가치와 정체성, 역할과 책임을 다시 재고해야 했던 것입니다. 위치, 감각, 행동방식 등 우리 자신을 리셋 해야 했었지요. 그리고는 우리 집의 냄새를 따라가면서 3km 거리를 비행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혼란보다는 변화에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이 벌치는 사람에게 들은 얘기이다. 3m 거리에 아카이브를 옮기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2m 거리에 있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혼돈을 느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맹자》에는 이런 말이 있다. 울타리를 넓히면 가축의 목줄을 메어 놓을 필요가 없다. 일일이 목줄로 가축을 사육하기보다는, 멀찌감치 울타리를 쳐서 사는 동안에는 자유와 안전을 보장 받으며 살아 건강한 가축을 기르자는 뜻으로 이해한다. 맹자의 기록학이 있다면, 울타리를 넓게 치는 기록학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2m 거리도 울타리를 넓게 치는 것이라 생각한다.

3) 생태적 세계관의 이해와 역사적 구성

아카이브는 하나의 세계이다. 어떤 세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기적 인과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회색늑대 이야기를 해본다.

7) 다음을 개작했다. “벌집을 매일 밤 3cm씩 옮겨도 벌들은 아침에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 놀랍게도, 벌집을 3km 옮겨도 벌들에게는 문제가 없다.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방향감각을 재설정하는데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벌집을 2m 옮기면 벌들은 치명적인 혼란에 빠진다. 그들은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감각을 재조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먹이를 찾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인지하지 못한다. 집이 불과 2미터 옆에 있는데도 그들은 원래 집이 있던 빈 공간을 계속 맴돈다.”(윌터 머치, 《눈 깜빡일 사이》, 2010, 비즈앤비즈, 22쪽).

1995년이였다.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회색늑대 14마리가 나타났다. 공원측에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캐나다에서 들여온 늑대들이었다. 늑대는 사슴을 사냥하기 시작했다. 70년 동안 천적 없이 무사태평이었던 사슴들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개체수의 감소보다는 사슴들의 행동이 급격히 달라졌다는 점이 중요했다. 사슴들은 위험한 곳(계곡, 협곡)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사슴들이 떠나자 잡초들이 마음 놓고 자랐고, 나무들도 많아졌고, 근사한 숲이 형성되었다. 숲이 생기자 새들이 날아왔다. 곰들도 나타나 딸기를 따먹었다. 곰들은 사슴의 새끼도 잡아먹었다.

나무를 좋아하는 습성을 지닌 비버는 어디선가 돌아와 강둑을 만들었다. 비버의 강둑은 수달, 오리, 어류들의 서식지가 되었다. 늑대는 코요테도 잡아먹었다. 코요테의 숫자가 줄자 코요테가 즐겨 먹던 토끼와 생쥐가 늘어났다. 그러자 토끼와 생쥐를 좋아하는 여우, 족제비, 오소리, 독소리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강물이 움직였다. 굽이 줄어들고 침식도 줄어들고 물길도 좁아졌다. 더 많은 웅덩이가 생기고 급류지역도 늘었다. 그것은 숲이 강둑을 견고하게 받쳐주었기 때문이다. 계곡 옆면에서 자라던 식물들이 강의 경사면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자 토양침식도 줄어들었다. 회색늑대 프로젝트를 정리하자. 늑대는 사슴과 코요테만 잡아먹는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었다. 늑대는 존재하는 방식이 달랐고 의미도 달랐다. 늑대는 식물들과 다른 동물들에게 서식지를 주고 생명을 주었던, 생태계를 복원했던 목수였다.⁸⁾

이런 물음이 가능하다. 기록관리는 정부의 늑대였을까. 이 물음은 가지를 친다. 아카이브는 그럼 정부의 늑대일 수 있을까. 또는 인간이 있는 곳에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늑대가 필요하다면, 아카이브는 늑대일 수 있을까.

지난 10년을 정체의 시기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 어떤 평가기준인지 궁금해진다. 혹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배치현황인가, 지방아카이브의 설치현황인가. 기록관리법의 항목을 평가기준을 삼아 달성 정도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든다. 정부의 기록관리가 정체일 순 있겠다. 그러나 정부에만 기록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지 않은가. 왜 자기 밖에 모르는가. 지난 10년은 기록의 연대기에서 특이한 시기였다. '기록열병'이라 말할 정도로 아카이브는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급격한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그 함의는 무엇일까.

정부의 기록관리 틀에서 이런 변화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수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따로 논의하자, 집어치우자> 하는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기록과 시민의 기록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새로운 기록프레임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아카이브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는 데 있어, 기록관리법 말고도 다른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이며 관계적 접근으로 볼 수 있는 거시적 평가기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토달 아카이브 논의와도 연결된다 하겠다. 다만, 기록물이 아니라 관계를 중점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는 약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다.

8) 조지 몬비오(George Monbiot), <훨씬 더 경이로운 세상을 위해, 야생성을 회복시킵시다>, TED 강연 (2013.7.6.)

이 글은 지난 10년을 풍요의 시간으로 이해한다. 농사조차 지을 수 없는 박토가 좋은 토양으로 변했던 풍요일까를 가꾼 것은 누구인가.

“농사를 하는 듯 마는 듯 10년이 흘렀다. 무슨 일이 있었나? 가장 박한 땅에서 자란다는 칩과 역새, 가시딸기, 썩, 망초 따위가 농장을 뒤덮었다. 잡초 줄기를 틀어쥐고 흔들어 뽑아내자 후드득 떨어지는 흙이 그렇게 보드라울 수가 없었다. 땅속 사방으로 뿌리를 뻗치면서 굳은 흙을 아주 잘게 부숩놓은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이들이 나고 죽고를 반복하면서 쌓인 유기물질로 인해 표토가 마치 양탄자처럼 폭신하게 되었다. 내가 없는 동안 잡초가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이다.”⁹⁾

기록관리직이 정부에서 기록관리 한다면 다 떠난 곳에서, 인간의 일로서 기록을 다룬 것은 잡초와 별레였다. 이 은유를 사실적으로 말하는 것은 현정과 현정문서 이야기로 말해본다. 기록을 말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처음에는 느릿했지만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것 같다.

4) 기록의 마음

이 글은 사실 마음에서 출발했다. 벌써 20쪽을 향해 간다. 1쪽부터 시작했어야 할 논의였는데, 너무 멀리 왔다. 지금이라도 마음과 기록의 관계에 대해 말해야 한다.

마음은 생각, 정서, 감각, 태도, 습관, 기억, 윤리, 도덕, 가치(신뢰, 우정, 사랑 등) 세계관 등의 인구로 구성된 집합체이다. 마음은 인간의 핵심이다. “heart는 라틴어 cor에서 왔고, 단지 감정만이 아니라 자아의 핵심이다. 앎의 형식·지적·정서적·감각적·직관적·상상적·경험적·관계적·신체적·이 수렴되는 중심부이다.”¹⁰⁾ 마음은 삶을 이해하고 구성하는 능력이다. record, courage도 라틴어 cor(심장)로 구성된 말이다. 심장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이다. 심장은 의학만의 특수 장기가 아니다. 심장은 피가 순환한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일상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은유이다. 심장은 피가 순환하는, 또는 우리 삶의 핵심을 순환시키는 신체의 어떤 장소를 상징한다. 늦은 밤 귀가하는 길에서 가끔씩 나오는 근원적인 물음이 보존되어 있는 곳, 자신과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에 관한 것을 통합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충실해질 수 있는 곳,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할 때 필요한 용기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마음이다. record가 이런 상징세계의 일원이라는 점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

9) 황대권, 《고맙다 잡초야》, 2012, 도솔, 122-123쪽. 황대권은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13년 2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그곳에서 그를 지켜준 것은 사소한 물건, 별레, 잡초였다고 한다. 황대권은 잡초의 생태적 의미를 이해하고부터는 잡초라는 말을 쓸 수 없었다. 그 말은 무시, 편견, 냉대가 가득한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야생초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허사였다. 책을 쓸 시점에서는 다 포기하고 잡초로 선회했다고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단어 하나를 바꾸어 사람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10년 동안 나는 의식의 변화가 아니라 유행의 변화를 목격했을 따름이다.” 이제는 오히려 야생초보다는 잡초에 더 깊은 애정을 느낀다고 한다. 그러나 꼭 그런 잡초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릭은 2007년 무렵부터 잡초를 잡초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매년 늦가을이면 잡초기록(그림)을 전시하는 농부들과 어울려 지냈다. 그래서인지 릭은 잡초가 처음부터 사랑스러웠다.

10) 파커 J. 파머,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2012, 글항아리, 38쪽

다. 기록도 마음을 구성하는 인구이다.

마음이란 학문영역이 아니거나 그렇더라도 정신의학 계열이나 윤리학 계열이라는 분류법 때문인지, 기록관리 대상에서 마음은 누락되어 있다. 현실이 아니기에 빠져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은 지배적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만날 수 있다. 첫째,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태도일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단견인 것 같다. 현재의 사회적 상황을 보자. 아카이브를 다른 분야에서는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인권, 정치, 예술 등에서 이미 아카이브는 주요 논점이 되었다. 아카이브의 주인임을 자부한다면 아카이브를 쓰는 타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이런 대화를 나누다보면 자연스럽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둘째, 마음은 기록관리 현장에서 쓸 수 없다는 태도일 것 같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지난 20년 동안 정부의 기록관리가 기록현장을 기록행정으로 매우 좁혔기 때문은 아닐까 한다.

마음에 관한 기록학적 논의는 계속 있었다.¹¹⁾ 이런 기록태도는 기록의 냄새를 맡으며 따라가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기록의 마음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기록에 관한 생각과 말, 기록에 관한 태도와 습관, 아키비스트 윤리강령, ‘인권옹호를 위한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의 역할에 관한 기본 원칙’(2016, ICA)에서 요청하는 실천적 기록활동 등이다.

실천적 기록활동은 마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마음을 말하는 품사를 폭넓게 사용해야 한다. 특히 public mind가 있어야 한다. public이라는 형용사는 공동체를 향한 어떤 태도이다. public mind는 자신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신체(몸과 마음)를 두고 있는 곳이다. 그것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고, 공동체에서 오는 마음이다. 전화통화를 하는 상황처럼,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자신이 지금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이다. 자신의 어떤 행동이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를 훼손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지지하고 연대하고 강화할 수도 있다는 의식적 자각이다. 그것은 타인이라는 존재를 의식하는 행동이다. 문제는 이것이 과연 공공기록관리와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상관이 있다면 어떤 점에서 상관이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마음은 규범으로, 언어(body language 포함)로 생산된다. 마음은 일정한 사회적 관계에서 생산되고 상호작용하고 다시 수용되는 방식으로 변형된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처럼 매일의 변용성이 마음이다. 기록관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것도 기록의 마음이다. 국가기록원과 공공기록관의 상호관계는 법률적 기록관계이다. 일상적인 이런 기록관계에서 어떤

11) 논문 몇 편을 겨우 단편적으로 읽었다. 연구사 정리라 할 수 없다. 독서 목록만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 아키비스트 윤리강령을 다룬 여러 편의 논문이 있다.
- 마음의 세부를 다룬 연구로는 우정(조은성 2013), 이미지/심상, 기호(조민지 2014), 실천주의(이현정 2014), 정동(이경래 2017), 보살핌(이현정 2018) 등이다. 마음에 관한 논문으로 읽었다.
- 아카이브의 거버넌스에도 마음이 있다(예. 서울기록원 + 기억발전소 2018의 관계, 경청).
- 몇 편의 석사논문에도 마음이 있다. 습관(이숙 2016), 주권(김신석 2017), 체화된 지식(정다현 2017), PR(류가은 2017), 여행(강석주 2019) 등.
- 기술과 공동체 아카이브의 실천적 활동, 포스트모더니즘 아카이브 연구경향, 정치철학의 연구경향에도 마음이 있지만, 아직 그 정도 연구가 진척되지 못했다.

언어(공문, 전화통화나 회의석상의 말 등)인가, 어떤 태도인가, 어떤 정서인가 하는 것이 우리는 어떤 기록을 추구하느냐 하는 것이다. 1999년에는 기록물 관리가 중요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기록이란 무엇인가 하는 근원적 질문이 오히려 진지하게 필요한 국면이 되었다.¹²⁾ 이 국면에서는 기록의 마음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기록관리 분야에서 마음은 사이드 메뉴 취급을 받았다. 시민의 아카이브 활동이 민간기록관리라고 취급되며 방치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각각은 서로 다른 존재이다. 누가 누구에게 우월함이나 계몽정신을 가질 수 없다. 연민이면 족하다.

정치적 맥락에서 마음은 정치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힘으로 이해가 된다.

마음은 민주주의적 기질(에릭 M 우슬러너 2013)이다. 신뢰를 예로 들어본다. 신뢰는 마음의 영역이다. 신뢰를 말하는 것이 개 밥풀 뜯어먹는 한가한 소리, 맥락 없는 소리라고 치부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아카이브는 민주주의의 심장부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다면 같은 동네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신뢰는 민주주의적 기질이다. 신뢰는 부모로부터 배우기 시작해 살면서 지속적으로 배운다. 신뢰는 구성원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고리이다. 신뢰는 존재론의 항목이고 공동체 구성의 원리이다.¹³⁾

존재를 인정하느냐는 그 존재를 신뢰하느냐이다. 신뢰는 존재성(정당성)에 관한 것이고, 존재방식(관계와 역할에 대한 것)에 관한 것이다. 무력으로 자신을 내세우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견이다. 장기지속의 원리는 존재를 구성하는 자들의 동의와 합의이다. 동의와 합의는 신뢰의 표현이자 척도이다. 그것은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 공적 자리에서 내려오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었던가. 이것을 무력으로 제압하다가 끝내 촛불에 굴복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사인간의 관계만이 아니다.

신뢰는 공적 관계(Public Relation)에서도 적용되는 정치적·구성적 힘(constituent power)¹⁴⁾이다. 공적 관계(PR)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홍보가 아니다. PR=홍보 등식은 잘못된 이해이다(류가은 2017). PR은 어떤 기록관계를 맺는가 하는 논의이다. PR은 public mind 계열에 속하는 기록관리 도구이다. 마음 계열에 속하는 기록도구는 많다. 2장의 도표에도 나열되어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사실적인 것은 현정문서를 참조하라. 논지를 심화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음은 새로운 정치체제, 새로운 정치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힘이다(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크 하트, 2014). 마음은 모던 아카이브로 태동하던 시기부터 사회학, 정치철학의 탐구대상이었다(김홍종 2009).¹⁵⁾ 마찬가지로 아닐까 한다. 기록의 마음은 기록자 개인의 실존적인

12) 정치적인 격동이 여운으로 있었던 2018년 6월, 한국기록학회가 주최한 월례발표회가 있었다. 이 인상적인 기록모임은 20년 동안의 장기지속 물음인 기록이란 무엇인가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2018년 이전에도 기록이란 무엇인가 하는 말과 글과 제도화가 있었고, 2018년 이후에도 지속되지 않을까 한다(설문원 2019). 기록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기록공동체의 영원한 화두가 아닐까 한다.

13) 에릭 M. 우슬러너, 《신뢰의 힘 - 신뢰의 도덕적 토대》, 2013, 오늘의 책.

14) 이 말은 원래 불어 'pouvoir constituant'에서 왔는데, 정치철학에서는 '새로운 정치체제, 새로운 정치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힘(활력)'을 의미한다고 한다(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크 하트, 《공동체》, 2014, 사월의 책, 38쪽). 이 글도 이런 맥락에서 썼다.

15) "뒤르켐의 '집합표상', 베버의 '정신', 푸코의 '에토스', 토크빌의 '습속', 아날학파의 '심성', 레이먼드 윌리

상황에서도, 그리고 기록을 재구성해야 사회적 차원에서도 논의되어 왔다. 예를 들어, 저명한 테리 쿡은 마음으로(archival mindset) 모던 아카이브 150여 년의 역사를 재구성했다(테리 쿡 2013). 한국의 기록공동체도 마음에 주목하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정책포럼에서도 기록의 마음에 대해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애초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았다. 가끔은 기록학을 지배하는 진정한 학문이 경영학이 아닐까 하는 것. 기록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윤리학이 아니라 경영학이 관리하는 것 같다. 그러나 기록과 마음의 관계는 정치학이어야 할 것 같다. 마음을 다양한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원리로 이해하고 여기에 기여할 바는 찾는 것이 기록의 정치학이지 않을까.

5) 현정과 현정문서

마음의 관점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찾은 문서가 있다. 아카이브의 건축 기술은 현정 문서에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현정은 아카이브에 진지했다. 현정의 관심은 아카이브였다. 현정은 아카이브를 찾아 세상을 주유했다. 현정문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서 고뇌와 번민, 갈망과 정의감, 같이해야 하지 않겠냐는 호소를 만날 수 있다.

물론 논의를 단순하게 해야 했기에 현정이라는 실존하는 가상인물을 만들었다. 대안적 논의를 위해서는 현실감이 있어야 하고 토론의 지점이 명확할 것 같았다. 실존인물을 연상시키는 캐릭터와 같이 읽을 수 있는 발표된 글을 찾았다. 현정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캐릭터이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기록을 서식지로 삼아 기록하는 동물로 살았던 사람들, 순간들, 이룩한 성과와 좌절 등에 대한 집합적 표상이다.

예를 들면, 기록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바쳤던 몇 날 며칠, 자라나는 후세를 위해 강의에 바쳤던 밤과 낮, 기록전문직의 정체성을 고민했던 순간들, 자기가 관리하는 기록의 가치를 고민했던 시간, 시민과 어울리며 기록활동을 했던 시간, 우리를 슬프게 하는 사회적 사건이나 일상의 기록현장에 들어가서는 슬픔에 벤치에 함께 앉아 한 동안 고민했던 시간, 기록으로 약자를 옹호하려는 정의감을 기록의 본질이라 생각했던 시간, 정부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 기록으로 인간을 이해하려는 시간, 사회를 분석하고 민주주의의 방향성으로 이끌어가고 노력했던 시간, '현'을 설득하고 움직이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시간, 그리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 보고서 하나를 위해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던 시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곳에서 기록물을 정리하기 위해 애썼던 시간, 한 번의 기록물 폐기를 위해 바친 몇 개월. 현정은 이런 노고에 대한 집합적 표상이다.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운 이런 노력의 순간들은 기록으로 인간을 이해하려는 기록의 태도이고 사회의 진보를 위한 기록행동이었다. 기록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으려는 의지였다. 기록을 새로운 언어적, 물리적 질서로 작동하는 별세계(別世界)로 이해하는 것이었다. 기록

엄스의 '정서구조'와 같이 사회학의 방대한 전통 속에 이미 존재하는, '집합적 마음의 구조화된 질서'라는 의미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2009, 문학동네, 7쪽)

은 이렇게 하나의 가치 있는 세계로 구성되었다. 다만, 이런 장엄한 기록서사를 다 쓸 수 없어서, 현정이라는 캐릭터가 필요했고, 논의가 필요한 현정문서로 제한했다. 집합적 존재는 역사적 형성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 20년 동안 아카이브를 고민했던 기록자들의 진지했던 시간을 현정문서로 집약시켜 살펴볼 것이다.

현정문서는 다채롭고 풍요롭다. 처음 읽는 사람은 2m 거리감으로 혼돈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몇 번을 읽어보면 ‘강의실에 늑대 한 마디가 들어왔다’는 파격의 시각적 이미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생경한 언어, 정서, 태도, 윤리를 기록에 삽입하려는 진지한 시도가 있다. 건축에 필요한 기술이 많이 들어 있다. 무엇보다도 현정문서의 주인공은 새로운 존재이다. 선영문서의 주인공이 기록물이라면 현정문서의 주인공은 ‘타인’이다. 모든 이야기는 주인공이 이끌어간다. 기록물이 이끌어가는 기록서사와 인간이 이끌어가는 기록서사는 다를 것 같다.

현정문서는 “나는 기록물을 관리한다.”(A)는 사실보다는 “나는 타인을 보살핀다.”(B)는 프로포즈에 방점을 찍는다. 서술의 편의상 A, B로 구분했다. A의 목적어는 기록물이다. B의 목적어는 타인이다. 목적어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인생사 누구와 엮이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리며 운명이 달라진다. 왕자님의 옷을 입느냐, 거지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 인생행로가 달라진다. 또는 심순애가 김중배와 엮이면 다이아몬드를 받고, 이수일과 엮이면 푸념을 받는다(아닐 수도 있긴 있다). 순애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요즘이라면 인형의 집 속편에 등장하는 노라에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다. 기록종사자도 어떤 계열의 문장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기록하는 방법, 태도, 윤리, 정서, 언어, 가치관 등이 달라진다는 생각이다. 오늘은 B가 주인공이다. A는 주인공을 빛내주는 조연(경합하는 조연)의 역할을 맡는다.

A와 B, 두 개의 계열과 그 계열들을 묶어주는 풍(fonds)에 대해서 쓴다. ‘기록의 정치성에 관한 단상’을 굳이 계열과 풍에 넣어 말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기록언어의 품사(명사)가 기록종사자에게 익숙하기 때문이요, 오늘 말한 것들을 담을 수 있기 까닭이다. 은유(예: 잡초와 벌레)는 서사와 이미지의 씨앗이 된다.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추구할 기록이미지를 위해, 우리가 서식할 수 있는 기록서사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기록에 관한 것들을 찾으려는 시간에 시소러스처럼 우리를 안내해줄 은유를 위해, 새로운 기록언어가 필요하다. 신체를 바꾸는 것은 신체가 처한 상황을 바꾸는 것이다. 다른 상황에 가면 신체는 바뀐다.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다른 언어로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누군가 변신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설은 다음과 같다. 현정문서는 적어도 아카이브를 건축하는 원리적 출발을 알리는 문서가 될 수 있다는 것. 또는 노크이지 않을까 하는 것.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소리일 수도 있고 밖으로 나오면 좋겠다는 소리일 수도 있다. 푹푹, 누군가 문을 노크한다.

5. 몇 가지 제안

1) 적폐를 대하는 태도 : 이행기 정의

법 제정 20년이다. 이곳저곳에서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신장개업'이라도 하는 것 같다. 국가기록원이 고언을 청해 듣겠다는 정책포럼은 20년을 굽어보며 좋은 레시피(정책방안)를 논의해보자는 자리이지 않은가.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별 일이 없었다면 20년은 <제정기 → 혁신기 → 확산기 → 모색기>의 국면으로 이해되었을 것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를 제정기-혁신기로 보는 것, 2017년 3월 탄핵 이후 2년이 새로운 모색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는 없을 것 같다. 문제는 2008년~2017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일 것 같다.

이 시기를 적폐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 시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대해서도 새로운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 이에 대해 말해본다. 이 시기는 역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반동적으로) 한 바퀴 굴렀던 시기이다. 정부의 기록관리가 공적으로 쓰이지 않고 사적 전유의 상태로 부당하게 쓰였다. 여론과 군중을 동원하고 공무원들을 강요해서는 정부기록과 정부기록시스템을 복수, 혐오, 처벌에 악용했다. 부당한 통치 권력이었다. 부당한 통치술이었다.

이 글은 적폐의 시간이라는 데에는 동의하며 적폐청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이다. 이 글에서 말하는 적폐는 2018년 2월 국가기록원에 제출된 <국가기록관리 혁신방안>(2018.2)에서 언급한 적폐를 말한다. '적폐'라는 말은 박근혜정부에서 먼저 쓰기 시작했고, 촛불 때 시민들이 썼고,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도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적폐청산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사회를 보는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다. 국가기록원도 정부의 적폐청산 흐름에 맞춰 자발적으로 혁신TF를 꾸려서 보고서 작성을 요청했던 사안이다. 그 후 1년이 지났다. 이미 끝난 사안인가. 다시 재론하는 것이 어리석은가.

식당의 은유가 필요할 것 같다. 한 식당 주인이 신장개업을 한다며 레시피를 열심히 개발했다. 그런데 한동안 영업을 하지 않아 홀은 어수선했다. 식당은 음식 맛이라는 당연한 생각이 앞섰던 식당주인은 바닥청소는 그만 깜빡 잊은 채 손님을 받았다. 바닥에는 휴지, 오물, 먼지가 있었다. 손님들은 새로운 간판과 음식 맛에 끌려 식당에 들어섰지만 그 곳에서 밥을 먹지는 못했다. 레시피 개발도 중요하지만 바닥청소도 중요하지 않을까.

국가기록원이 적폐세력으로 몰려서 많이 위축되었다는 말을 가끔 사석에서 듣는다. 개인과 조직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것은 아무개 아무개가 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기록원이라는 조직이 한 일이라는 점이다. 국가기록원은 정부조직의 일원이다. 정부조직이 불법적인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근대국가에 속하는 정부이다. 근대국가는 사인간의 복수를 금하고 법적 절차

를 통해 정의를 구현한다. 전통시대에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어 직접 복수를 해서 자식된 도리를 다해야 했다. 그러나 근대국가는 자력구제에 해당하는 사인간의 처벌을 불법적인 것으로 금한다. 대신 정부가 나서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의를 구현한다.

적폐청산은 <이행기 정의>에 관한 일이다. 이행기 정의는 과거사 청산을 위한 담론이다. 여기에는 5대 원칙이 있다. 첫째, 어떤 일이 있었는가(진상규명). 둘째, 그 일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책임규명). 셋째,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가치). 넷째, 피해자의 슬픔을 이해하고 같이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슬퍼함). 다섯째,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가(의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배상, 제도개혁, 문화적 구축(추모시설, 기념관 등)¹⁶⁾.

이행기 정의는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사적으로 가해자를 찾아가서 응징하자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에 4.3 70주기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했다. 그리고 진상규명 등의 책임을 안았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70년 전에 제주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었다. 정부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저지른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했다. 개인과 조직은 구분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범죄, 또는 정부가 정당하게 일했는가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개인적 접근이 아니라 제도적 접근을 하기 위함이고, 제도적 접근보다는 규범적 접근을 하기 위함이다(규범은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판단의 기준'이다. 보다 자세한 것은 후술한다). 이행기 정의가 제대로 집행되면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 전에 비해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다. 적폐청산의 요지는 이것이다(처벌에 대해서는 사법적 처벌로만 좁히지 않으면 좋겠다. 정치적 책임의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4장에서 다룰 예정이었다).

국가기록원도 나름의 고충이 있을 줄 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현재 공공기록관리법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자임하고 있다. 자기 혼자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것은 아니다. 한 국가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어서 공공기록관리 최종책임자라고 한다면, 고충만 내세워서는 안 될 것 같다. 1999년 이후 진행된 공공기록관리의 혁신성이 불신을 받기 때문이다. 5대 원칙대로 하자는 말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행기 정의를 위한 별도의 논의 자리가 있다면 그 때는 구체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번에는 원론적 접근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적폐로 이해되는 지난 10년 만큼 이 문장의 정치적 실상을 잘 말해주는 시간도 없을 것 같다. 정부기록에 관한 한 국가기록원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정부기록에 관한 한 청와대보다는 국가기록원이 윗물이 맑을까 하는 것이다.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 이행기 정의의 과정도 결국 정부기록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공공기록관리에는 또 하나의 차원이 있다.

이행기 정의는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일 양국의 관계에서, 한국은 일본에 대해 과

16)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토론회 자료집》(국회의원 진선미·국가인권위원회, 2018.6.22.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

거를 반성해야 공동의 미래를 모색할 수 있다고 말을 한다. 반면 일본 정부는 과거를 말할 수록 양국의 불신이 깊어지니 과거보다는 미래를 모색하자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믿기 어렵다. 한국 사람들은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 신뢰를 가질 수 없다.

올 해는 법 제정 후 20년이 되는 해이다. 국가기록원이 20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줄 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불신(식당의 은유에서는 바닥에 떨어진 휴지, 오물, 먼지)을 내려다보고 하나씩 찬찬히 풀어가는 것이 바닥청소이다. 글을 쓸 때는 바닥까지 내려가서 써야 한다는 은유가 있다.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는 글은 자신의 밑바닥에서 나온다는 취지일 것이다. 바닥청소는 신뢰를 복원하는 일이다. 누구나 자력으로만 살 수는 없다. 타력에 의지해서 자신의 이해와 욕망을 덜어내야 한다. 자신을 객관적인 위치에 놓는 것은 자신을 비판하는 타력을 내부로 수용하는 것이지 않을까. 그러나 마지막 한 걸음은 당사자가 내딛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국가기록원은 타력에 의지해(혁신 TF) 개선의지를 보였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이 아닌가.

국가기록원이 명분을 가지고 일하면 좋겠다. 찬찬히 이행기 정의를 수행하며 기록정의를 구현하기를 희망한다.

2) 불가능성의 투자

기록관리가 불가능한 것을 찾아보면 어떨까? 다음과 같은 기록풍경을 상상한다.

“미국 아이오와 시절, 한 달에 대여섯 차례씩 돌아오던 낭송의 시간을 기억한다. 진지한 낭송, 몰입한 청중들, 그 고요와 긴장, 목소리의 떨림.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이 가능했으면 하는 생각을 그때 했다. 한 번은 <내 여자의 열매>라는 나의 단편소설을 낭독하는 날이었다. 직접적인 독자의 반응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떨리는 일인지 나는 미처 모르고 있었다. 영어로 읽기 전에 한국말로 한 부분을 읽었다. 그 순간 그들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강연과는 달랐다. 다른 느낌의 소통이었다. 읽기가 끝난 뒤 에란다스는 나에게, 자신의 옆 좌석에 앉았던 여자가 내내 눈물을 흘렸다고 말해 나를 놀라게 했다. 그 작은 도시에서, 서툰 영어로, 연고도 전혀 없던 내가 그 생활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문화적으로 풍요한 공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결국 나는 부인하지 못하겠다.”¹⁷⁾

이것은 국가기록원 열람실 풍경과는 사뭇 다른 기록풍경이다. 국가기록원 같은 거대한 전문기록관리관에서는 불가능한 기록시간일 지도 모르겠다(현재의 구조에서는 공공기록관에서도 불가능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의 불가능성을, 국가기록원의 불가능성이라는 이유로 기록의 세계에서 추방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오히려 국가기록원은 자신의 불가능성을 찾아서는 좋은 곳에 투자해야 하지

17) 한강, 《사랑과, 사랑을 둘러싼 것들》, 2003, 열림원, 121-123쪽.

않을까 한다. 지원은 하되 개입은 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정부문법에 따라 투자처를 찾는 것이다. 일상아카이브/공동체아카이브/여성아카이브 등이 추구하는 '더 작은 아카이브'라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기술된 기록물의 상자를 열어서 문서철을 넘기며 함께 읽는 시간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다. 굳이 검색시스템을 통해야만 하는 것일까? 여전한 의문이다.

3) 아카이브 거버넌스

형식적인 거버넌스는 그만두고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다. 실질이 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관계(새로운 기록관계)라 답할 수 있을 것이고, 사례를 제시하라고 한다면 2018년 서울기록원과 기억발전소의 '아카이브 거버넌스'에 주목하게 된다.

이상으로 논의를 마친다. 상징적인 두 문서를 비교하며 10년의 변화를 분석했다. 새로운 기록담론에 관한 모색을 담은 글을 썼다. 잘못 알고 있거나 괜한 트집으로 억측을 부리는 것은 사실과 비판으로 잡아주면 좋겠다. 특히 5장 1절에 대해서는 속상함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우정이라 생각해주면 좋겠다.